



<http://www.mir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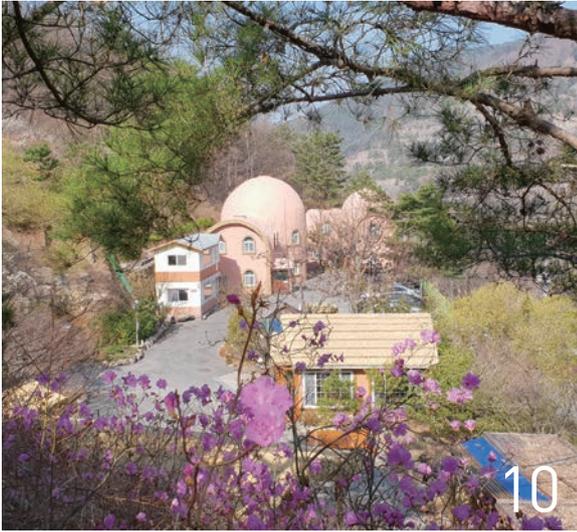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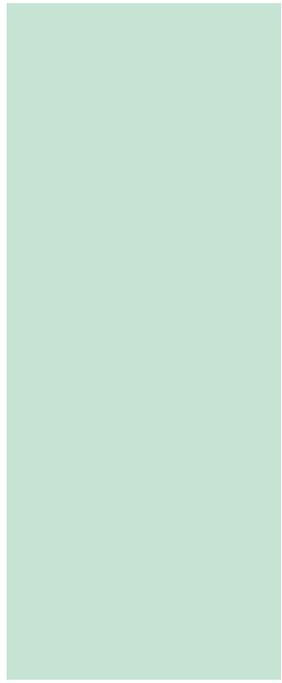
# 밀양

그 아름다운  
속살 이야기

2018. 봄호 | VOL.17



6



10



1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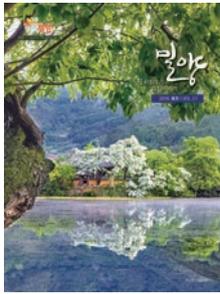


28

# 밀양

그 아름다운  
속살 이야기

2018. 봄호 | VOL.17



## COVER STORY

밀양시 부북면 위양지(위양못)에는 봄이면 이팝나무가 저수지에 반쯤 잠긴 채 꽃을 피워 풍성한 풍경을 선사한다. 저수지에 비친 위양지의 비경을 찍기 위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신라시대 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된 위양지는 저수지 가운데 5개의 작은 섬과 완재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다.

## 밀양, 그 아름다운 속살 이야기

©2018년 봄호 // 비매품 //

발행일 2018년 4월 10일

발행처 밀양시청

주소 (우.50420)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

전화 (055)359-5628

팩스 (055)359-5731

밀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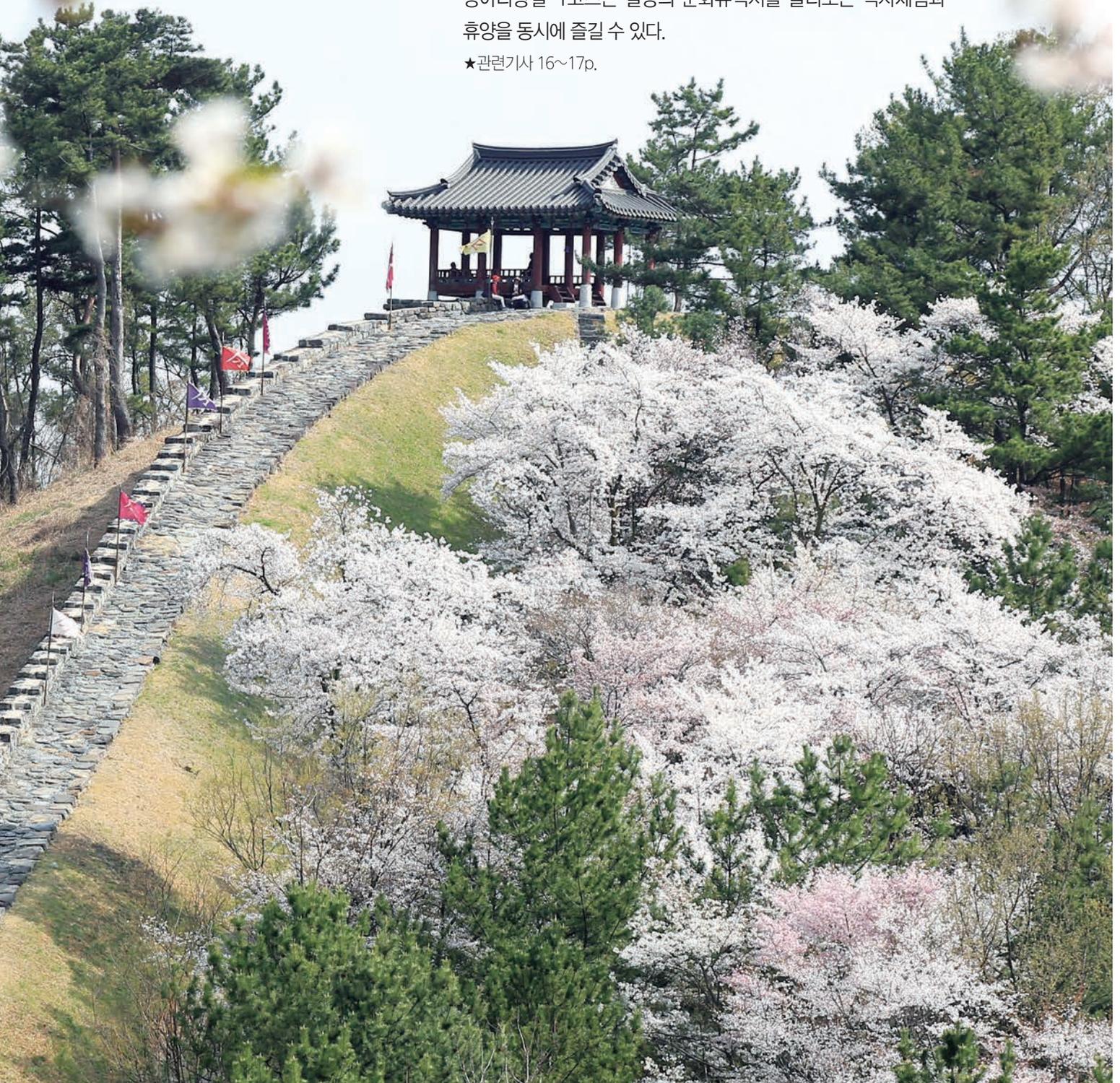
- 4 밀양의 봄 - 밀양읍성과 무봉대(舞鳳臺)
- 6 특집 /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 17일 개막  
과거 60년, 미래 60년을 만나다
- 10 나들이 / 여기, 이곳  
삼랑진 '토끼와 웅달샘 숲속도서관'
- 14 탐방 / 의열기념관  
여기, 밀양사람들의 항일투쟁 역사가 있다
- 16 밀양의 명소 / 밀양읍성  
밀양읍성에서 만난 애민(愛民)
- 18 밀양의 고택② 오우정(삼강서원)  
다섯 형제 우애 전하는 오우정(五友亭)
- 20 밀양을 빛낸 출향인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24 내고장 명인 / 다기 명인  
부북면 '밀양요' 김창욱 도예가
- 28 인터뷰  
아랑무료급식소 운영 한웅희 참조은사람들 회장
- 32 부농 꿈  
'귀농 7년' 산외면 청정표고마실 권용철 부부
- 34 지역특집 / 삼문동  
삼문둔치 벚꽃길과 밀양파크골프장
- 36 농·특산물 / 자매결연·직거래  
밀양 농·특산물 판매실적 급증 "이유 있네"
- 38 관광 밀양 / 만어사  
만어사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본격화
- 39 교육도시 밀양 / 미리벌학습관  
미리벌학습관! 새롭게 변화하다
- 40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광고



## 밀양읍성과 무봉대(舞鳳臺)

밀양읍성에 벚꽃이 활짝 피어 봄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밀양읍성의 망루인 무봉대(舞鳳臺, 봉황이 춤을 추는 누각)는 예전에 밀양강에서 나룻배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사람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밀양읍성에서 시작해 영남루에 이르는 6.2km의 '밀양아리랑길' 1코스는 밀양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역사체험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관련기사 16~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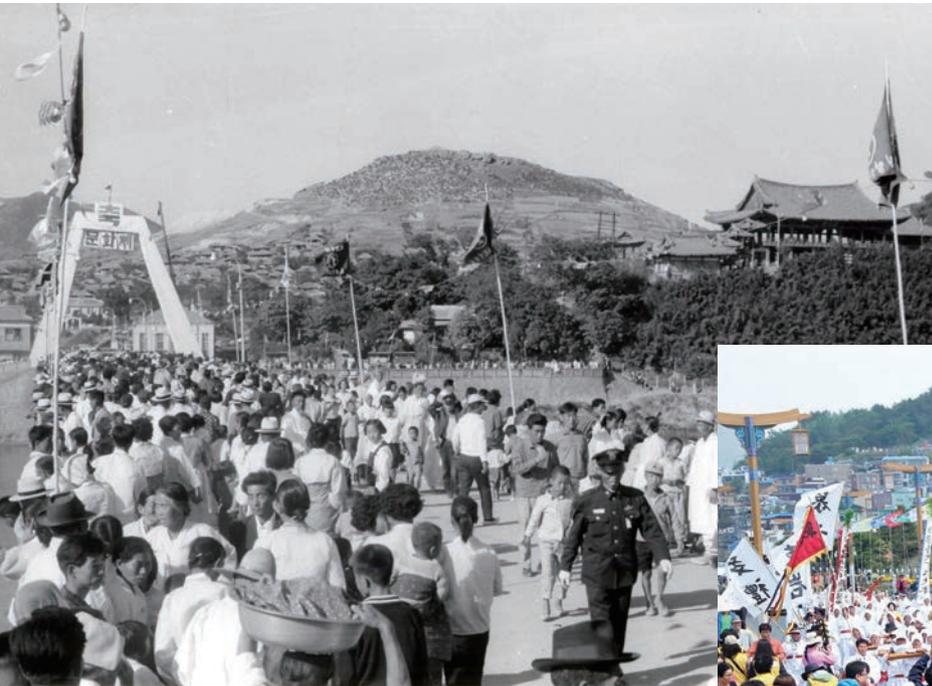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 17일 개막

과거 60년,  
미래 60년을 만나다!

1957-

밀양아리랑대축제는 1957년 '밀양문화제'로 처음 시작한 이후 경남지역 향토축제로 60년을 우리 곁에서 함께해 왔다. 밀양과 경남 사람들의 즐거움의 장, 감동의 장, 대화합의 장이 되어온 밀양아리랑대축제가 60주년을 맞아 더욱 화려하고 이색적인 축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올해는 아리랑이 가진 대동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 화합의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어 아리랑대축제 본연의 의미를 한층 더 되새길 것으로 기대된다.



1966년 제1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2017년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 2018



## 문화체육관광부 2년 연속 유망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마다 지역 축제 중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역전통 문화예술축제로서 성장해온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해 이제 경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그 이름을 올렸다.

수백 개의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축제들 속에서 당당히 문화관광 축제로 그 이름을 떨친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지난해 41만 명의 관광객과 18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며 밀양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단순히 밀양시민들만이 즐기는 수준의 축제를 넘어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 밀양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 5월의 밀양은 아리랑의 계절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 아리랑! 밀양의 5월은 아리랑의 계절이다. 아리랑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밀양만이 가진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밀양, 정선, 진도아리랑뿐 아니라 전국의 아리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민대통합아리랑은 이미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경대학교가 마련한 밀양과 밀양아리랑의 주제공연은 그 세련됨과 화려함으로 축제장을 빛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밀양아리랑학술대회와 밀양아리랑경창대회를 통해 아리랑을 보존·계승하고, 아리랑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는 우리 주변에서 아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상남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강 오딧세이’. 이제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밀양아리랑대축제의 핵심콘텐츠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가 된 밀양강 오딧세이 역시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구성, 새로운 감동으로 나흘 동안 밀양강변과 영남루를 빛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밀양시민배우가 함께하는 밀양강 오딧세이는 5월 17일 저녁 최종 리허설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관광객을 찾아간다.

### 대동의 축제! 화합의 한마당!

60주년을 맞는 아리랑대축제는 대동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6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겨루는 팔씨름,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대회, 그네뛰기는 읍면동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웃고 즐기고 떠드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그리고 읍면동 대표 풍물단이 펼치는 신명나는 농악경진대회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이다.

###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먹거리 존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각종 먹거리 존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축제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며 밀양의 먹거리를 널리 알린 향토음식관은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로

구성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독특한 먹거리가 있는 푸드트럭은 30대 이상이 참여해 먹거리뿐 아니라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할 것이다. 지난해 80마리 이상을 소비한 미량초우 축산물 페스티벌 또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

현대의 축제는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독창적인 콘텐츠로 5월의 밀양을 아리랑으로 화려하게 수놓을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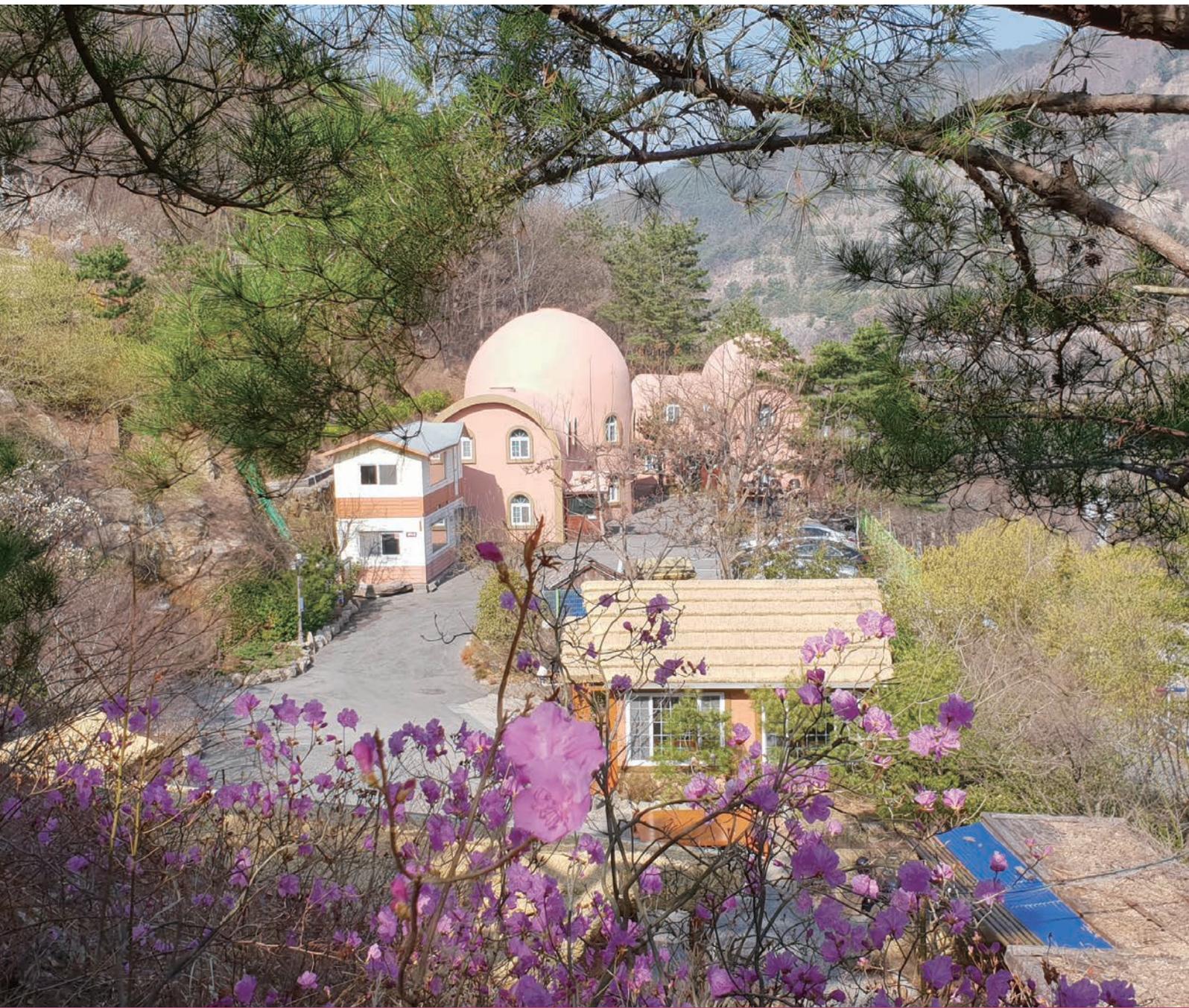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대축제-아리랑가요제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주요 행사 일정표**

일자	행사명	시간	장소	
5. 17.(목)	(사명대사) 충의불씨채화	16:10 ~ 16:40	표충서원(표충사 내)	
	(점 필 재) 지덕불씨채화	16:40 ~ 17:10	예림서원(사 포)	
	(아랑낭자) 정순불씨채화	17:20 ~ 17:50	아랑사당(아동산)	
	충의·지덕·정순 불씨인수	17:55 ~ 18:00	천진궁(3개 불씨 취합)	
	불씨봉헌고유제	18:10 ~ 18:30	천진궁(영남루 내)	
	전야제(국민대통합아리랑)	19:00 ~ 20:30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 ※최종 리허설	20:30 ~ 22:00	영남루와 밀양강변	
5. 18.(금)	전야경축 불꽃 쇼	22:00 ~ 22:10	밀양강변	
	프린지 공연 등 각종 행사	10:00 ~ 18:00	축제장 내	
	무형문화재 축제	13:00 ~ 16:20	밀양강변(행사장 내)	
	밀양아리랑학술대회	14:00 ~ 16:00	아트센터 소공연장	
	출향인 고향의 밤	14:00 ~ 17:30	미정	
	충의·지덕·정순 성화봉송 및 거리퍼레이드	16:30 ~ 18:30	진마트 → 서막식장	
	성화봉송 고유제	17:20 ~ 17:50	천진궁(영남루 내)	
	서막식	17:30 ~ 19:20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초야제(아리랑 주제 공연)	19:20 ~ 20:20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	20:30 ~ 22:00	영남루와 밀양강변	
5. 19.(토)	서막경축 불꽃 쇼	22:00 ~ 22:10	밀양강변	
	프린지 공연 등 각종 행사	10:00 ~ 18:00	축제장 내	
	무형문화재 축제	13:00 ~ 16:00	밀양강변(행사장 내)	
	제17회 밀양아리랑가요제	18:30 ~ 20:20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	20:30 ~ 22:00	영남루와 밀양강변	
5. 20.(일)	불꽃 쇼	22:00 ~ 22:10	밀양강변	
	농악 경진대회	10:00 ~ 18:00	밀양강변(행사장 내)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10:00 ~ 18:00	프린지 특설 무대	
	아랑규수 선발대회	10:00 ~ 18:00	영남루	
	해천뮤직페스티벌	15:00 ~ 17:00	해천야외공연장	
	아랑대관식 및 폐막식	18:30 ~ 20:20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	20:30 ~ 22:00	영남루와 밀양강변	
경연행사	폐막 불꽃 쇼	22:00 ~ 22:10	밀양강변	
	날짜 미정	전국 한글 백일장 대회	10:00 ~ 18:00	밀양시청 공원
		전국 학생 미술 실기대회	10:00 ~ 18:00	밀양 교통공원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11:00, 13:00, 15:00	여성회관 등
		전국 휘호 대회	09:00 ~ 17:00	미정
		전국 밀양아리랑 연극제	09:00 ~ 12:00	가곡동 공간사랑 등
		전국 한시 백일장	10:00 ~ 20:00	밀양시청 공원
		영남공도대회	10:00 ~ 22:00	추화정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10:00 ~ 22:00	프린지 특설 무대	
동시행사	전국 연날리기 대회	10:00 ~ 18:00	암각화 공원 일대	
	수학체험 어드벤처	10:00 ~ 18:00	문화체육회관	
	미량초우 브랜드 홍보관	10:00 ~ 20:00	행사장 내	
기타 행사	풍물 시장(5. 14 ~ 23 / 10일간)	10:00 ~ 22:00	밀양교 ~ 남천교 주차장	



삼랑진읍 행곡리 '토끼와 응달샘 숲속도서관'

##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책도 읽는다

밀양 삼랑진역에서 삼랑진양수발전소에 이르는 길을 따라 달린다.

안태호를 끼고 돌아 천태호로 가는 길에 만개한 벚꽃이 꽃비가 되어 흩날린다.

벚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오르는 길목에서, 동화 같은 이름을 가진 예쁜 숲속도서관을 만났다.



이곳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옛 시골집의 정취와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올려 볼 수 있다.

###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담은 숲속도서관

삼랑진읍 행곡리 천태산 아래 야트막한 아산에 한복 저고리 모양의 외관을 지닌 건물이 하나 있고, 뒤편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가물에도 마르지 않았다는 웅달샘이 있다.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다는 동요 속 깊은 산속 웅달샘 같은...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토끼와 웅달샘 숲속도서관'이다.

독서정영을 중시하는 (주)큐라이트의 최현길 대표와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이기숙 이사장 부부가 조성한 야외 도서관이다. 이곳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옛 시골집의 정취와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올려 볼 수 있다.

최 대표는 도서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댔다.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촌(村)스럽게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나무와 돌을 최대한 그대로 두었고, 나무 한 그루, 들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돌부리 하나까지 허투루 하지 않았기에 더욱 숲속도서관다워졌다.

'토끼와 웅달샘 숲속도서관'은 시원연수원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현재 도서관 운영은 큐라이트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사)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다.



산책로를 걷다가 원두막에서 책을 꺼내 보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느껴지면 잠시 책을 덮고 그림처럼 펼쳐진 산을 바라다보는 여유.





**읽고 걷고 생각하며 책의 매력에 빠지다**

이기숙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책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역의 시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책과 함께하는 일일 캠프를 운영하기도 한다.

“책을 늘 옆에 두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책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어요.”

본관은 세미나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동도서 400여 권, 성인도서 1200여 권이 비치돼 있다. 한 권 뽑아 들고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앉아서 보면 된다. 2층 다락방에서는 숲속을 보면서 책을 볼 수 있고, 천장이 뚫린 유리창호를 통해 낮에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본관 옆 다실 겸 음악감상실에서는 녹차, 보이차, 발효차 등 여러 가지 차와 다구가 비치돼 차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별관 옆 전통 생활품 전시관에는 전통 생활품과 아동도서 700여 권이 비치돼 있다. 방문객들은 재봉틀, 타자기, 고서 등 옛것을 만나며 추억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전통 농기구 전시대에서는 키, 명석, 벼를 보면서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도 샘솟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숲속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만난다. 고전문학방갈로에는 고전문학 도서 700여 권이, 시 원두막에는 성인용 시집 500여 권이, 수필 원두막에는 성인용 수필 400여 권이 비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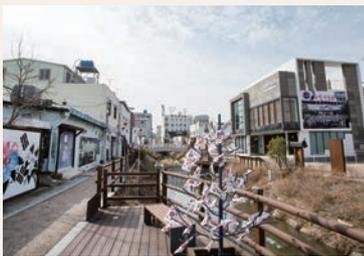
책 한 권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도서관에는 이미 1만여 개의 이야기가 있는 셈이다. 여기에도 방문객들이 풀어내는 이야기까지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다.

산책로에 들어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한다. 웅달샘물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나, 토끼집을 지나면서 이야기 둘, 원두막에서 책 한권 읽으면서 이야기 셋, 나무마다 걸려 있는 시화를 읽으면서 이야기 넷...

산책로를 걷다가 원두막에서 책을 꺼내 보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느껴지면 잠시 책을 덮고 그림처럼 펼쳐진 산을 바라다보는 여유. 이것이 ‘토끼와 웅달샘 숲속도서관’이 원하는 독서요, 이 도서관을 만든 이유다.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책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기, 이곳으로 떠나라.

**토끼와 웅달샘 숲속도서관**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행곡로 220  
Tel. 055)354-6688



항일운동테마거리 '의열기념관'

## 여기, 밀양사람들의 항일투쟁 역사가 있다

밀양 내이동 해천을 따라 걷는다. 봄 햇살 사이로 수많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항일운동테마거리다. 광복은 그토록 바랐던 꿈이었다.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그날을 꿈꾸던 사람들 이야기가 벽화에서 튀어나온다.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만세,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 약산 김원봉 생가 터에 들어선 ‘의열기념관’

지난 3월 7일 항일운동테마거리 내 약산(若山) 김원봉 장군 생가 터에 ‘의열기념관’이 들어섰다. ‘의열’을 주제로 한 기념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것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의 의열투쟁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의열기념관은 지상 2층 건물로, 쉼터 공간인 옥상을 포함해 전시공간은 304㎡이다. 1층에는 의열투쟁 관련 자료 검색대와 동영상, 김원봉의 연설 동영상 등이 있다. 2층에는 의열단 창립단원 소개, 밀양경찰서 폭탄투적 의거를 웹툰 형식으로 제작한 동영상 등이 있다.

옥상 쉼터에는 광복의 기쁨을 상징하는 청동상과 윤세주를 비롯한 해천 주변 독립운동가들의 생가와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충절의 고장’ 밀양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

왜, 의열 투쟁 본향이 밀양일까? 막연한 물음은 몇 걸음 걷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밀양은 일찍이 ‘충절의 고장’이었다. 그 정신을 이으면서 1890년대부터 세워진 신식 학교들을 통해 훗날 독립운동 근간을 이룰 청년인재들이 속속 육성되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어울림 터였다. 표충사 스님들, 밀양교회 여성 신도들, 주민 만세운동을 주도한 춘화리 교회 등, 신앙 대상과 교리는 서로 달랐지만 구국 항일에 한마음으로 독립전선에 나섰다.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 밀양에서 젊은 혼불들이 많이 배출된다. 3·1운동 이후 밀양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열단’이 조직됐고, 김원봉과 윤세주를 필두로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긋게 된다.

——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의열 정신

계단을 올라가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의열단’이었다. 1923년 1월 김원봉은 신채호로부터 ‘조선혁명선언’을 받고 의열단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의열단. 일제에 맞선 뜨거운 투지와 열정은 나라 안팎에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다.

태극기를 든 동상 옆에 선다. 지금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 의열기념관이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을 알리고 역사교육 현장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해천 항일운동테마거리와 독립운동가 생가지를 연계한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바람이 분다. 태극기가 펄럭인다. 다시금 평화와 의열정신을 되새긴다. 현대인의 삶 속에 잊히는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DNA는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날의 함성을... 



현대인의 삶 속에 잊히는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DNA는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날의 함성을...

밀양읍성에서 만난 애민(愛民)

## 싸워야 할 적들은 보이지 않고, 지켜야 할 사람들뿐이었다

내일동에 자리한 밀양읍성에 올랐다. 아동산과 아북산을 잇는 산등성이를 따라 성곽을 오르니 마침내 망루에 당도했다. 그 옛날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보기 위해 이 높은 곳에 누각을 지었을까. 이제 왜적이 침입할 걱정은 없지만 여전히 밀양읍성은 축조될 당시의 너른 품으로 밀양을 감싸 안고 있다. 딱히 적이라 칭할 이도 없으나, 바꿔 말하면 천지가 적인 이 시대에, 읍성 안에서는 누구나 지켜주겠다는 그 옛날의 약속이 들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아늑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짓고, 다시 짓고  
새롭게 복원하다**

읍성은 지방의 관청이나 민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아올린 성곽으로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지어졌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밀양읍성은 조선 성종 10년인 1479년에 지어졌다. 당시 다른 읍성들이 지어지던 시기보다 100년 이상 일찍 만들어졌다. 밀양읍성의 규모는 길이 2.1km, 높이 2.7m에 달했으며 성 안에 동헌과 객사를 비롯한 관아, 연못 1개, 우물 4개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전해진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지어진 밀양읍성은 여러 차례 부서지고 다시 짓기를 반복했다. 임진왜란 때 적에 의해 함락된 것을 재건했고, 이후 일제강점기 때 경부선 철도 건설을 위해 사대문과 성벽을 허물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됐다.

밀양읍성의 성돌은 경부선 철도 건설과 밀양철교 건설, 한국전쟁 당시 진지 구축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 지금은 아동산과 아북산을 잇는 산등성이에 읍성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비록 원래의 모습은 잃었지만 읍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동문을 새롭게 복원하면서 하부 성문과 상부 문루가 옛 모습을 되찾았다. 지금 밀양읍성에 오르면 성곽의 끝자락에서 복원된 옛 동문을 만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성이 재정비되고 읍성이 있는 아동산 일대에 공원이 조성되면, 밀양읍성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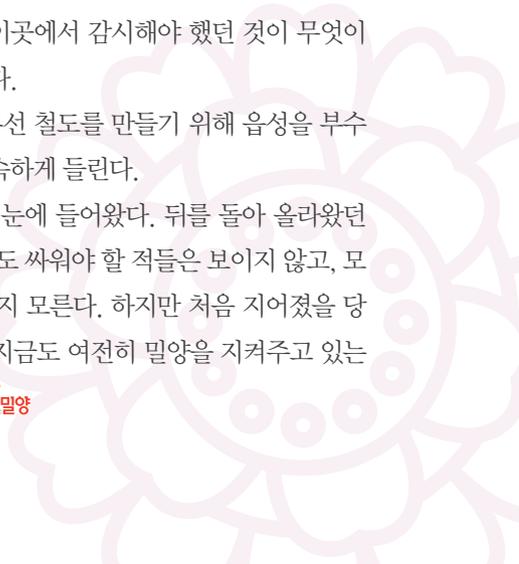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성곽을 따라 오르면 밀양읍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봉대를 만날 수 있다. 무봉대는 밀양읍성의 망루(望樓)로 밀양강을 타고 올라오는 왜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다.

무봉대에 올라 멀리 밀양강을 내려다 봤다. 그 옛날 이곳에서 감시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지금은 밀양의 아름다운 풍경만 눈에 들어온다.

밀양강 너머 밀양철교 위에 기차가 지나간다. 저 경부선 철도를 만들기 위해 읍성을 부수고 성돌을 가져갔다고 하니 기차가 내는 소음마저 야속하게 들린다.

밀양강 너머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밀양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뒤를 돌아 올라왔던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도 삶이 가득했다. 그 어느 곳에도 싸워야 할 적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지켜야 할 사람들뿐이었다. 모양과 형태는 잃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처음 지어졌을 당시의 애민정신은 성돌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남았다. 지금도 여전히 밀양을 지켜주고 있는 밀양읍성에서 오래 기다렸던 따뜻한 봄을 만났다. 





밀양의 고택 12  
오우정과 삼강서원

## 다섯 형제 우애 전하는 오우정(五友亭)

밀양강과 낙동강, 낙동강 하구에서 밀려오는 물결에 마주친다는 삼랑진에 가면 세 강줄기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서원을 만날 수 있다.

삼강서원은 밀양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뒷마루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풍경이지만 서원에서 배향하는 다섯 형제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 삼강서원에 배향된 여흥 민씨 형제의 이야기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에 위치한 삼강서원은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여러 번 중건됐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삼강서원에 배향된 여흥 민씨 다섯 형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하던 민구령은 1510년에 삼랑루가 있던 자리에 정자 하나를 지었다. 그곳에서 아우인 구소, 구연, 구주, 구서와 함께 기거하면서 학문을 갈고닦으며 효와 우애를 실천하며 살았다.

형제간의 우애는 고을을 넘어서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찾아가 다섯 형제의 우애가 돈독함을 확인하고는 조정에 벼슬을 천거했다. 하지만 형제는 극구 사양했고, 조정에서는 형제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 오우정(五友亭)이라는 현관을 하사했다. 이때부터 '오우정'이라 불리게 됐다. 이후 고을 사람들이 형제의 덕행을 기리고자 정자 안에 오우사를 지어 제향했다. 오우사는 삼강사로 개칭됐고 다시 삼강서원으로 바뀌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정자와 사당, 비석뿐 아니라 형제들이 남긴 문장과 저서 등이 거의 불타버렸다. 이후 1702년에 다시 서원을 지었고, 1775년에 삼강사비를 세웠다.

지금의 삼강서원 건물은 1979년 사당을 다시 지어 현관을 건 것이다. 지금은 오우정이 소실된 자리에 서원을 다시 지은 것으로, 두 이름이 통용되고 있다. 삼강서원에 가면 삼강서원 현판과 오우정 현판이 같이 걸려 있다. 삼강서원에서 음력 삼월이 되면 유림과 후손이 모여 향사를 지낸다.

**우애와 효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빛나는 우애**

삼강서원 입구에 있는 삼강사비는 민구령과 네 아우의 효와 덕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이 비석은 기존의 기적비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자 1775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6호로 지정돼 있다. 민씨 다섯 형제가 쓴 시, 서, 서간문 등은 전란을 거치면서 멸실됐으나 남은 자료로 오우 선생 실기를 편찬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 제305호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에 밀양시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그 옛날 지어졌던 오우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재건한 삼강서원과 압구정, 사당과 삼강사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의 물결은 많은 것을 사라지게 했지만 서원에 배향된 다섯 형제의 효와 우애는 결코 빛바래지 않는다. 오히려 우애와 효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들의 우애가 더욱 빛날 뿐이다.

삼강서원 뒷마루에 앉으니 그 시절 다섯 형제가 나눴을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그 이야기는 알 길이 없으나 하나는 알겠다. 예나 지금이나 삼강서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밀양을 빛낸 출향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상동면 출신)

## 북핵 문제·다자외교 정통 36년 공직 몸담은 외교관

밀양시 상동면 출신 천영우(65)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문제와 다자외교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 지난 2013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요즘도 현역 때 못지않은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 북한과 동북아시아 역내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전략연구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포럼을 만들어 남북 통일 문제에 심혈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고되면서 국내외 언론의 인터뷰와 기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천 이사장을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고정초등학교 거쳐 상동중학교 다녀**  
**당시 상동중 명칭은 ‘밀양중학교 상동분교’**  
**밀양시내까지 걸어가려면 2시간 이상 걸려**  
**시골 분교 학생에게 본교는 어마어마한 존재**  
**졸업 때까지 본교인 밀양중 한 번도 못 가봐**

**Q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A** 상동면 고정초등학교, 상동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상동중학교 정식 명칭은 밀양중학교 상동분교다. 내가 졸업한 이후 상동중학교로 독립했다. 남녀공학 1개 반이었는데 남학생 35명, 여학생 25명 등 모두 60명으로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본교였던 밀양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봤다. 시골의 작은 분교 학생에게 본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존재였다. 또 밀양시내까지 걸어가려면 족히 2시간 이상은 걸린다. 밀양시는 너무 멀고도 변화한 대처로 느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숫자도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20명이 채 안됐을 정도다. 밀양시내 고교로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부산으로 유학하는 것은 소위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을 정도였다.

**중학교 때 만난 유능한 영어 선생님은**  
**외무고시를 준비하다 교편 잡은 분으로**  
**그때 내 영어실력 많이 늘어**  
**외교관 진로 정하는 데 큰 계기**

**Q 외교관의 꿈을 꾸 계기가 있다.**

**A** ‘우물 안 개구리’였던 산골소년이었기에 미지에 대한 동경과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외교관을 꿈꿨다. 또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직업에 대한 끌림도 있었다. 중학교 때 유능한 영어 선생님과 만남도 진로를 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 외무고시를 준비하다 교편을 잡은 분이었는데 그때 영어실력이 많이 늘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불어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학과에 불어과에 진학했다. 그해 부산대에 불어과가 처음 생겼다. 가난한 형편에 서울로 진학하지 않고도 외무고시를 준비할 수 있었다.

**Q 당시 지방에서 외무고시는 생소했을 듯한데.**

**A** 전통적으로 사범·행정고시 준비생은 많았지만 지역에서 외무고시는 생소한 분야였다. 시험에 대한 정보도 없어 영어와 불어 이외 법학, 국제정치학, 경제학 등은 독학했다. 3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대학을 졸업하던 만 25살에 11회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77년 9월이었다. 과거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무)합격자는 있었지만 외무고시라는 명칭으로 부산대 첫 합격자였다. 당시 외무고시 합격자는 35명이었는데 지방대학 합격자는 1~2명에 불과한 시절이었다.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등을 담은**  
**역사적 ‘2·13 합의’를 이끌어 낸 게**  
**공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Q 외교관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공직 36년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북한 핵 문제인데 만 6년 이상 담당했다. 1999년~2000년까지 2년간 북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 부장을 했다. 약 3~4개월마다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법적·노사문제 등을 협상했다. 이때 북한 고위 인사들과 접촉 경험을 쌓았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시절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남한 총괄책임을 맡았는데 당시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됐다. 그때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열렸고 협상도 빈번했다.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등을 담은 역사적인



2·13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공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자평한다. 약 2년6개월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절에도 북핵문제를 가장 신경 썼다.

**Q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서 활약도 적지 않았는데.**

**A**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최대사거리 800km에 500kg까지 폭약을 담은 탄두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800km는 대구에서 중국 심양까지, 강릉에서 러시아 우수리스크까지 거리이고, 북한 내 모든 미사일기지는 중부권에서 500km 이내에 있다. 미국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국가안보보좌관과 3시간 담판 끝에 이끌어 냈다. 또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망자 없이 인질 21명이 전원 구출된 쾌거였다. 이후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적은 한 건도 없다.

**Q 아덴만 여명작전 제안 사실은 처음 공개하는 것 아닌가.**

**A**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이자 그림자다.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역할이지 공을 내세우는 자

리가 아니다. 작전이 잘못될 경우 책임지고 자리를 내놓는다는 각오를 했다. 당시 사망자를 3~4명 이하로 줄이면 작전은 성공이라는 생각에 만약 그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내가 직접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작전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공교롭게 당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도 밀양 출신이다. 밀양 출신인 내가 대통령께 작전을 제안하고 석 선장도 현장에서 잘 대처해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시간이 흘렀으니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시 작전에는 밀양 출신 두 사람이 있었다.(웃음)

**● 운영 중인 한반도미래포럼에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식과 공직경험을 전달하고 앞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

**Q 외교안보수석 시절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로 흥역을 치렀는데.**

**A** 신공항 문제는 외교안보수석과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발표한 당일 밀양과 부산에 가서 성난 여론을 달래는 역할을



맡았다. 밀양과 부산에 다 연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향사람이라 봉변은 당하지 않았지만 양측으로부터 서운하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그래서 이후 공군에 은밀히 대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답을 얻었다. 놀랍게도 국토부와 부산시 등에서 공개한 타당성 조사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다시 신공항 입지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그동안 침묵하다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공개했다. 밀양과 부산에 모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고향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지 않아 서운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Q 앞으로 계획은.**

**A** 국가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야 논객으로서 국론의 중심을 잡고 담론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이다. 운영 중인 한반도미래포럼에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공직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요경력**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52년 밀양시 상동면에서 태어나 상동 고정초등학교, 상동중학교를 졸업했다. 부산 동아고, 부산대,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외무고시 11회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1977년 외무고시(11회)

1998년 외교통상부 과학환경담당 심의관

1999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 부장

2001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2001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정책총괄과 과장,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2003년~2005년 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2004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2005년~2006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

2006년~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2006년~2008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2008년~2009년 주 영국대사관 대사

2009년~2010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

2010년~2013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13년 6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14년 1월~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 부북면 '밀양요' 김창욱 도예가

## 다기에 담긴 밀양의 자연



마당 한 편에 큰 가마와 작은 가마가 놓여 있고 장작들이 커켜이 쌓여 있다.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자연을 닮은 다기(茶器)가 탄생한다.

흙을 섞고 만들고 말리고 바르고 굽는 모든 과정을 거쳐 찻잔 하나가 만들어진다. 흙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이렇듯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하다. 밀양요(密陽窯) 대표 김창욱 도예가는 찻잔 하나를 위해 기꺼이 긴 시간을 들이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밀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부북면 위양리로 접어들었다. 5월이면 이 근방은 위양꽃 이팝나무 절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계절 따라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위양꽃을 지척에 두고, 위양꽃의 풍경을 보며 여유로이 차를 마실 수 있는 '밀양요'를 찾았다. 밀양요는 대한민국 다기 명인 제11호인 청고(靑皐) 김창욱 도예가의 작업실이자 다기 전시장이다. 이곳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다기 관람이 가능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을 수 있다.

### 예술, 생활에 닿다

김창욱 도예가는 일본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과 스페인을 비롯해 국내 전역에서 12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다기 명인으로 선정된 것 외에도 부산미술대전 대상, 경남공예대전 금상, 국제도예대전 우수상, 일본북북중일미술전 금상, 대한민국다기품평대회 봉상 등 수려한 수상 실적이 그의 작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대변해 주고 있다.



“

도자기를 만들 때는 마음이 정갈해야 해요.

그래서 이른 새벽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작업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흙도 잘 안 만져지고 흙이 다음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



그는 도자기와 운명적으로 만난 이후 도자기를 이용한 조형작업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조형작업만으로 생활이 녹록지 않아 생활 도자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보면서 즐기는 도자기에서 쓰면서 즐기는 도자기로 시선을 돌리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생활 도자기에서도 얼마든지 예술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예술이 일상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

“조형 작업을 할 때는 그릇 만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활 도자기를 해 보니 작은 찻그릇, 주전자 하나까지 쉽게 나오는 작품이 없더라고요. 차 도구에도 예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생활 도자기로 눈을 돌리면서 ‘밀양요’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도자기 체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에서 차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밀양요에서는 창밖 위양뚝 풍경을 보면서 여유로운 차 한 잔을 마시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도자기 체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어요.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흙을 만지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도자기, 그의 손을 닦다

흙을 만질 때는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는 그, 언제나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한 후에 디자인을 시작한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마음이 정갈해야 해요. 그래서 이른 새벽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작업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흙도 잘 안 만져지고 흙이 다음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든 그의 작품은 모두 그의 손을 닮았다. 어느 것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그를 닮은 이유는 그가 물레작업보다 판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판 작업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붙이고 이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쓴다. 두드리고 손으로 밀고 새기고 긁어내는 모든 것의 재료는 흙이고, 그 흙을 만지는 것은 그의 손이다.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하다 보니 똑같은 찻잔은 하나도 없다.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 표면의 결이나 색감도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두드리고 매만지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면 대량생산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도자기의 맛, 손에서 나오는 맛이 잘 깃드는 것 같아서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고 있어요.”

### 밀양요, 밀양의 자연을 담다

그의 도자기는 밀양의 자연을 담았다. 밀양에 온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양못의 아름다운 절경을 눈에 담고, 그 감상은 고스란히 찻그릇으로 옮겨 간다.

“유명한 건축물이나 뛰어난 작가들의 경우 대개 자연에서 소재를 얻고 영감을 얻지요. 저도 밀양의 자연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위양못에서 수양버들 아래 오리가 놓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왕버들나무의 오래된 고목이 품어내는 기운들, 밀양 강변에 있는 돌 등 모두 제 도자기의 소재들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밀양을 담은 그릇들이 많다. 위양못과 오리가 그려진 차 도구, 왕버들의 고목의 형태를 본따 만든 차 도구, 돌의 형태를 본따 차 주전자 등 다양하다.

그는 앞으로도 이곳 밀양요에서 밀양의 자연을 담고 또 비워내기를 거듭하면서 밀양을 대표하는 도예가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는 뭔가를 채워서, 많이 넣어서 조화를 추구했었다면 앞으로는 비우면서 간결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비워도 거기에서 나오는 더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밀양





아랑무료급식소 운영하는  
‘참조은사람들’ 회장  
**한웅희**

## 마음 담긴 따뜻한 한끼 함께 나눠 따뜻한 행복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밀양시 내이동 아랑무료급식소에는 매주 수·일요일 어르신들 발걸음이 이어진다.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부축해 급식소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과 서로의 안부와 세상 살아가는 맛이 이어지는 곳이다. 행복을 나누는 급식소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가 있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참조은사람들 한웅희(60) 회장이다.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그의 미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닦아 있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 어르신들 위해 무료급식**

“(사)참조은사람들은 친목 및 봉사 카페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모토 아래 작은 일부터 찾아가며 지역 내 많은 분들과 함께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참조은사람들’은 울산·포항·밀양 지부를 운영 중이다. 집수리 봉사, 겨울나기 빨감 마련, 소외계층 무료급식, 장학농장을 통해 봉사를 하고 있다. 밀양에서는 2013년부터 아랑무료급식소에서 독거 및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 중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먹는 일은 중요하다. 먹고사는 일에 따스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들에게 그의 한마디는 작은 보탬이라고 하지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봉사와 나눔’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어르신이 ‘정성’을 들고 이곳에 옵니다”

“무엇을 바라고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 하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집수리 공사 일을 했던 그에게 ‘해비타트’는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취미가 되었다. 남들은 취미가 영화보기, 운동 등이지만 그의 취미는 봉사였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수리 봉사 일은 힘들지만 기분 좋은 마음은 그와 함께했다.

“운영이요? 힘들습니다. 하지만 이곳 급식소를 찾아오는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급식에 보탬이 되라며 한 분 한 분 검은 봉지에 가져오는 작은 정성들이 저희를 다시 살아 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지속 가능한 현실 반영은 어렵다. 현실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밀양시 푸드뱅크사업으로 연간 쌀을 지원받고 있다. 내이동 우동체인점 ‘황우동’ 사장이 매달 지속적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등 후원자들의 도움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아랑무료급식소도 바로 옆 고속버스터미널 천일고속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줘 지었다.





**“자원봉사자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저보다 아랑무료급식소를 실제적으로 운영해주시는 정윤경 소장과 김기옥 총무, 김매옥 급식국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칭찬받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나눔의 현실적 한계가 있어 사단 법인으로 ‘참조은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들은 본업에 충실하며 시간과 금전을 보태어 아랑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자신들의 삶 역시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나눔과 봉사는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나눔이란 이름 아래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 말한다. 이들이 곳곳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빛났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손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부담을 느낄 제안도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다리는 후원은

순수한 마음이다. 학생들의 노력봉사와 주변 지역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들이 다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있다.

개개인들 나눔의 한계를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거나 더 많은 후원을 받으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과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놓인 ‘참조은사람들’은 지금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풀 속에 숨어 있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애쓴다. 네잎클로버 꽃말은 행운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자기 주변 바로 곁에 있는 세잎클로버를 보지 못한다. 세잎클로버 꽃말은 행복이다. 참 좋은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통해 나누는 손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을 찾기 위해선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엔 눈길을 주지 않은 행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옹희 회장은 오늘도 ‘나누면 더욱 따뜻해지는 행복’을 얘기한다.  밀양

## 표고 향 가득한 그들의 '귀농 7년' 이야기

청정자연에서 표고버섯과 마가 튼실하게 커 간다. 봄기운 따라 찾아간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청정표고마실'에서 맑은 얼굴로 반기는 귀농 7년차 부부. 권용철(57) 청정표고마실 회장과 안순희(56) 농촌교육농장 원장이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할 때 몸으로 보여준 부부 이야기. 표고 향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철저한 귀농 준비와 욕심없는 농사

부부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표충사 내린천 지류의 깨끗한 물, 온난한 기후를 바탕으로 표고버섯, 둥근대마, 안빈 등 특용작물을 전통방식 그대로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다. 1차 작물 재배에 그치지 않고 2차 작물을 통해 식초 및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다. 나이가 농촌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과 교육장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자연의 법칙이다.

“직장 근처에 큰 표고버섯 농장이 있었어요. 귀농을 생각하던 차에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새벽같이 농장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부부는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노년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어찌 모실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부부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그만큼 귀농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좋은 작목을 선택하자.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작목과 주위 환경을 고려했다. 다양한 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과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땅도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

“요즘 귀농 추세가 고향에 남은 땅과 추억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농의 기본은 좋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기본이었다. 도시에서 했던 일을 농업에 접목시켰다.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노하우가 하우스 설치와 농기계 운용에 도움이 되었다. 직접 황토 벽돌로 집을 짓기도 했다.

농작물은 철저한 준비 덕에 무럭무럭 자라 주었다. 하지만 초반 판매 전략이 부족했다. 그때 이웃의 나눔은 큰 힘이였다.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사촌처럼 지내는 관계가 이어졌다. 밀양시의 도움도 있었다. 부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봉사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

물은 밀양 팜 등 직거래 방식을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고향 농촌서 일귀가는 새로운 꿈**

부부는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다. 체험농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농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치유농장이다. 이를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과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함께 살아가는 교육농장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꿈은 삶을 살아 있게 만든다. 하루가 부족하다는 부부의 말에 더 이상 노년의 걱정은 없어 보였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농촌의 삶. 농촌 일은 정신을 맑게 만들고 일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자연 속 부부의 이야기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이유다. 

“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농촌의 삶. 농촌 일은 정신을 맑게 만들고  
일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자연 속 부부의 이야기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이유다.  
”





## 삼문둔치 벚꽃길과 밀양파크골프장 봄나들이·레저공간으로 인기

삼문동은 밀양시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기관이 있다. 특히, 밀양강이 주변을 휘감고 있어 수변공원처럼 펼쳐진 야외공연장, 삼문송림, 조각공원, 파크골프장 등 각종 시설은 시민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문동(三門洞)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사질토의 삼각지로 형성되어 있다. 옛날에 삼문동은 수월리(水越里)라 했다. 수월리란 밀양읍성에서 남쪽 밀양강을 건너서 있다는 뜻이다.

오래전 남림(南林)이란 밤밭이 있었는데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도 많았다. 수풀 속에 사람의 힘으로 만든 산(造山)이 있었는데 용두(龍頭), 마암(馬岩) 2마리 용(龍)이 무봉산(舞鳳山) 한 구슬(珠)을 차지하려 다투는 형상이라 읍에서 소송이 끊어지지 않아 산을 만들어 두 용에게 구슬 한 개씩을 나눠줬더니 다투는 일이 없어졌다 한다.



● **벚꽃길이 아름다운 삼문둔치길**

‘삼문동 벚꽃 나들이 한마당 행사’가 지난 4월 8일 삼문동 제방길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삼문동 기관단체협의회의 주민 주도 참여형 행사로 마련됐다. 삼문동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시낭송, 통기타, 마술, 색소폰 등 프린지 공연과 삼문동 단체의 식·음료 판매, 지역농·특산물 판매, 체험부스 운영 등 상춘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주 행사장인 휴먼시아 아파트~푸르지오 아파트 간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많은 가족 나들이객들이 탁 트인 터널형 벚꽃길에서 사진을 함께 찍으며 멋진 추억을 담아가기도 했다.

● **45홀 규모 멋진 코스 밀양시파크골프장**

밀양 시내에 파크골프장(45홀)이 탄생하면서 파크골프 붐이 일고 있다. 밀양시파크골프장(회장 이언록)은 삼문동 631 코야루 아파트 옆 밀양강 둔치에 구장 면적 3만평, 5개 코스 9개 홀로 총 45홀이 운영되고 있다.

13년 전부터 시작된 밀양시파크골프장의 회원은 587명으로 21개 클럽이 소속돼 있다. 파크골프를 즐기려면 밀양시민은 어느 클럽이든 등록 후 회비를 내면 언제든지 경기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약제로 하고 있다. 밀양시파크골퍼들은 자체 대회도 많고 전국 대회에도 출전해 다수의 우승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밀양파크골프장은 애초에 골프장으로 조성키로 했다가 파크골프장으로 전환됐는데 마운드나 벙커 등이 가미된 멋진 코스로 유명하다.  밀양



# 밀양 농·특산물 판매실적 급증 “이유있네”

## 자매결연 교류·향우회 판매행사 큰 역할

밀양시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4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전년도 1년 동안 직거래 행사 29회, 홍보 행사 6회 등 총 31회로 전년 대비 10회가량 늘어 판매실적을 크게 올린 계기가 됐다.





2016년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은 5억3000만 원 정도였는데 비해 2017년도 실적은 7억8200만 원으로 3억97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가장 실적이 좋은 행사는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직거래와 홍보행사로서, 밀양시 읍·면·동과 지역주민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 46회 이상의 판매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1억45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밀양시 읍·면·동과 대도시의 16개 동, 그리고 7개 기업체와 맺은 자매결연 교류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밀양시 하남 수산대교 아래에 하남 뚝방장터를 개설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것도 밀양농산물 판매에 크게 기여했다. 농민들이 신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곳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정도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점점 많은 단골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11월 4일 폐장했지만, 봄에 다시 개장해 더욱 많은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하남 뚝방장터 판매실적은 1억2600만 원 정도이다.(개장: 2017.

5. 27. 폐장: 2017. 11. 4.)

지난해 처음으로 재부밀양향우회 주최로 해운대 센텀 KNN 광장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밀양 농·특산물 큰잔치'를 개최해 고향 밀양을 사랑하는 향우와 부산시민들에게 밀양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의 장을 마련했다.

고향 농업인을 돕고 우수 농·특산물 애용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행사에 밀양시 전체 읍·면·동에서 3~4농가씩 참여하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시식·판매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향우회에서는 참여 시민들에게 어묵과 파전 등 간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이들 동안 1억2000만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부산광역시와 인근 대도시에서 있는 밀양시 자매결연 단체와 기업체도 함께 참여해 밀양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우회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햇빛이 풍부한 '해맑은 상상,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앞으로 전국 최고의 농산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는 농·특산물 홍보, 직판장 운영과 함께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만어사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본격화

### 대형버스 주차장·편의시설 등 착공 수로왕·소원돌 등 '스토리텔링'도

밀양시는 삼랑진읍 용전리 만어사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변환경 개선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만어사는 가락국 김수로왕이 창건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재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물고기가 돌로 변했다는 만어산 암괴류(천연기념물 제528호)는 길이 450여m, 폭 40~110m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돌을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는 만어사 경석은 밀양의 3대 신비로 불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만어사 운해는 밀양 8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지역임에도 일부 진입 구간이 급경사지로 인해 불편한 보행 환경과 노후 화장실, 관광버스 회차 애로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광지의 이미지가 훼손된 실정이었다.

이에 밀양시는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어사 300m 하부 지

점에 대형버스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고, 만어사까지 접근이 용이하게 마음더하기 길, 물고기 숲길 등 다양한 테마 길을 조성해 산책을 곁들인 관광명사로 변모시키기 위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은 2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현대식으로 신축해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김수로왕의 의자, 용왕 아들 전설, 소원돌 등 다양한 이야기 자원과 전설을 활용해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만어사 주변을 동부권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벌학습관! 새롭게 변화하다

2018학년도 대입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 대학 20여 명 합격... 역대 최고 성과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리벌학습관이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강생 20여 명이 서울대, 연·고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8학년도 수시전형 최종 발표 결과, 미리벌학습관에서는 서울대 3명, 연·고대 3명, (수)이대 2명, 육사 1명, 교대 1명, 수도권 주요 대학 11명, 부산대·경북대에 7명이 합격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미리벌학습관은 그동안 변화하는 입시경향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에 대해 중등부 3학년, 고등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도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멘토링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울러, 수시에 대비하여 관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논술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특강과 독서 토론 등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시행했다.

미리벌학습관은 올해 화학, 생명과학만 실시하던 이과 논술에 지구과학을 포함하고, 고3 학생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과목 선택제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심화, 보충 멘토링 수업을 고1, 2학년 까지 확대하고, 중3 학생을 위한 과학 특강도 실시한다.

밀양시민장학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미리벌학습관은 변화하는 입시 경향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밀양을 명품교육도시 반열에 올리는 데 일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리랑의 선율, 희망의 울림!  
과거 60년 미래 60년을 만나다

# 제 60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th



셔틀버스  
운행



**2018**  
**5.17~5.20** 일  
목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주최 : 밀양시 주관 : (재)밀양문화재단

**대표 프로그램**

밀양강 오딧세이  
국민대통합아리랑  
역사맛이 거리 퍼레이드

**주제영 프로그램**

아리랑 주제관  
아리랑 주제 공연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아리랑 체험존  
소망기원등  
아리랑 캘리그래피  
아리랑 거리예술공연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아랑규수선발대회·제향  
불씨봉헌·봉송 고우제  
무형문화재 축제  
농악경진대회  
3대 인물 테마존  
밀양 역사탐방  
스텝 투어  
전통놀이  
수상 체험존  
농업&먹거리 상상관  
미량초우 브랜드홍보관  
밀양 언어잡기·시식체험  
해천뮤직페스티벌

**동시 프로그램**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전국밀양아리랑연극제  
전국한글백일장  
전국회화대회  
전국한시백일장  
영남공도대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  
전국 색소폰 대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출항인 고향의 밤  
수확체험 어드벤처

**부대 프로그램**

읍면동 한마당 축제  
서막식  
폐막식  
불빛존  
유등 전시  
프린지 콘서트  
夜한 무직 페스티벌  
먹거리존  
기념품 판매  
경품 추첨